

배포 일시	2022. 6. 22.(수)		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정책실	책임자	과 장 김남균 (044-201-4207)
	국제항공과	담당자	사무관 신우철 (044-201-4211)
보도일시	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2.(수) 10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6월 29일 김포~하네다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

- 양국 수도(서울~도쿄)를 잇는 교류 증진의 교두보를 마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, 외교부(장관 박진),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)는 6월 29일(수)부터 김포-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기로 일본측과 합의하고, 방한관광객 환대캠페인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김포-하네다 노선\*은 2003년에 운항을 개시한 이후에 대표적인 한-일간 비즈니스 노선으로 자리 잡았으며, 양국 수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성수기 탑승률이 98%에 육박하는 황금노선이었으나, 코로나-19로 인해 2020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.
  - \* '19년도 정기편 운항 횟수 : 주84회(대한항공·아시아나·일본항공·전일본공수 각 주21회)
-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면담(5.11)하였고, 한일 관계 회복 의지를 밝히면서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김포-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.
  - 이에,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김포공항 국제선 재개 준비를 완료하고, 김포-하네다 노선을 이룬 시일 내에 복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일본 국토교통성·외무성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다.
  - 그 결과, 6월 21일 양국 항공당국간 화상회의를 통해 6.29일(수)에 김포-하네다 노선을 재개하고, 일주일에 8회 운항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.

**< 세부 운항스케줄 >**

	주당 운항횟수	운항 스케줄	투입 기종*
대한항공	주2회	수 / 토	B737(174석)
아시아나	주2회	수 / 토	A321(188석) 또는 A330(290석)
일본항공	주2회	목 / 일	B767(199석) 또는 B787(199석)
전일본공수	주2회	월 / 금	B787(240석)

\* 항공사의 기재 운용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

- 이와 더불어, 양국은 운항횟수도 수요 증가추세, 항공사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7월부터 점차 증대할 계획이다.
- 또한, 2020년 4월에 중단된 관광목적 단기방문 비자 발급도 올해 6월부터 재개됨에 따라 김포-하네다 노선을 이용한 방한관광도 가능해진다.
  -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노선 운항 재개를 계기로 김포공항 내 외국인 관광객 환대부스를 열어 방한관광 재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.
  - 아울러, 하반기에는 일본 주요 도시에서 한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, 현지 여행박람회 등을 계기로 양국 관광업계 간 네트워크 복원을 촉진하는 등 일본 방한관광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관광산업 재건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김포~하네다 노선은 서울과 도쿄를 잇는 양국 교류의 상징성이 높은 노선” 이라면서, “김포~하네다 노선운항 재개로 한-일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” 한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 김남균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 신우철 (044-201-4211)
담당 부서 <공동>	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	책임자	과 장 염보영 (02-2100-7675)
		담당자	행정관 이현아 (02-2100-7706)
담당 부서 <공동>	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	책임자	과 장 이정은 (044-203-2831)
		담당자	사무관 유혜원 (044-203-2832)